

# 정보화로 새로운 도약을

- 제11회 정보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 정보화 수준을 현재 22위에서 2002년까지 세계 10위권 내의 정보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보화의 진전에 발맞추어 국민들로 정보이용력을 배양해야...

고 광 섭 정보통신부 정보화제도과장

오늘날 사회를 정보사회, 정보화 시대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정도로 정보화는 이제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도 정보화를 데이터로 단순히 전산화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으로서의 정보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최근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선진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작업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고금리와 높은 실업률, 물가의 상승 등으로 국민경제는 최소 성장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저력은 새삼 강조되어도 될 만큼 역동적이다. “금모으기 운동”에서 “태극기와 함께 뛰자”는 캠페인까지 온 국가는 다시 도약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절박한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있다. 6·25전쟁 이후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듯이 우리는 저력을 지닌 민족이다. “정보화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사명을 갖고 강력히 추진한다면 21세기 초에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것이다.

한국의 정보화 정책 자문을 위해 방문한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도 ‘한국의 지도자와 국민들은 현 경제위기 상황을 넘어서 미래의 혁명적 세계 경제를 위해 준비해야 하며, 재정개혁보다는 미래의 번영을 위해 새로운 차원의 강력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그 새로운 전략은 “정보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21세기 번영된 국가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정보화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화란 정보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기반(Infrastructure) 구축은 물론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정보통신 이용능력을 향상시켜 생활 속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해 함으로써 사회 제반의 활동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물론 정보통신 기술개발과 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회의 윤리, 법, 제도적 차원의 뒷받침도 뒤따라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려울 때일수록 저력을 발휘해내는 역량을 갖춘 민족이므로 정보화를 새로운 전략으로 채택하여 선진복지국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면 정부의 지도력 있는 추진력과 국민의 창의에 바탕을 둔 호응의 결합은 실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확충코자 '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보화의 체계

적 추진을 강화하였고,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을 현재 22위에서 2002년까지 세계 10위권내의 정보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여 고도정보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기반이나 정보산업의 육성과 아울러 정보화의 진전에 발맞춰 국민들의 정보이용능력 배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취임사를 통해 세계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1인 1PC 갖기 운동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부는 정보사회의 도래와 이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예견하고, '88년부터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달로 제정하여 국민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고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역·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이용의 생활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왔다.

오는 6월은 열 한번째 맞는 정보문화의 달로 정보통신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전국 각지에서 6월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주제는 정보화를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여 21세기 정보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기고, 세계로 뻗어나가자는 의미에서 “정보화로 새로운 도약을”로 정했다.

제11회 정보문화의 달 행사는 현재의 경제상황의 극복과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올해는 10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참신하면서 생활 속에서 정보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첫째, 신정부의 정보대국 구현 정책에 발맞추어 전 국민적 관심·참여 행사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참여기관 및 행사 수를 '97년 41개 기관, 116개 행사에서 올해는 46개 기관, 140여개의 행사로 확대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둘째, 다채롭고 참신한 범국민적·지역 행사를 개최한다. 연례적 행사를 지양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참신한 행사를 발굴, 각 지방에서 개최하여 지역정보화의 촉진과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정보화 마인드를 높이는데 주력한다. 셋째, IMF 경제체제에 맞닥뜨려 내실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 기존의 실적·전시 위주의 반복성 행사를 지양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시범적 행사를 개최한다. 넷째, 건전한 정보문화의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건전한 정보문화 정립과 이의 수용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민간의 창의력 개발과 수요 및 시장 창출을 위한 각종 공모전, 경진대회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정보화의 역기능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를 정착시킬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 다섯째, 사회 정보화 관련 기관 및 시민·민간 단체 등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의 위로부터의(Top Down) 정보화에서 벗어나 아래로부터의(Bottom Up) 정보화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화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를 적극 지원하며,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의 주요 행사로는 우선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을 들 수 있다. 이 행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보화 추진성과를 보여주는 「정보화추진종합전시회」와 연계하여 6월 8일 KOEX에서 개최한다. 또한 다양한 부문의 정보화 촉진과 정보문화확산을 위한 43건의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요 학술행사로는 한국정보문화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정보화 심포지엄”(6. 18 춘천; 9월 부산, 대전, 광주)이 전국적으로 개최된다.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정보통신혁명과 국제정치 국제학술회의”(6. 12~13, 외교안보연구원)과 한국정보처리학회의 “98 국제 컨퍼런스(IT21)-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21세기 정보기술”(6. 18~19,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회관), 한국멀티미디어협회의 “98 한·일 멀티미디어 기술 심포지엄”(6. 24~25, KOEX) 등이 있다.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통신 전시회는 IMF 경제위기 여파로 작년보다 개최 건수가 줄었으나 한국전산원의 “정보화추진종합 전시회(6. 8~11, 한국종합전시장), 전자신문사의 제12회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전시회(SEK '98)”(6. 24~27, 한국종합전시장) 등의 대형 전시회가 3건 개최된다. 정보화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려주는 시연회는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제4회 부산정보산업 소프트웨어시연회”(6. 18~21, 부산광역시청 대회의실)를 비롯

하여 19건, 민간의 창의력 발굴과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경진대회 및 공모전은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제15회 한국 정보올림피아드”(경시 : 7. 18, 서울대학교, 공모 : 3. 2~8. 25),”을 비롯하여 22건, 선진 정보통신 기술 및 응용에 대한소개와 정보문화확산을 위한 강연회는 한국복지정보통신협회의 “제2회 복지정보통신포럼”(6. 25, 중앙우체국), 대한전자공학회의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체제”(7. 3, 강원대학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지방 학부모 정보통신윤리 순회교육(5. 21, 원주 ; 7. 8, 부산)을 포함하여 30건 등 정보화와 관련된 풍성한 행사가 6월 한달 동안 전국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정보화추진협회의 “장애인 정보화 촉진 결의대회”(6. 20, 여의도종합전시장) 등의 정보소외계층 행사도 많이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이 앞찬 결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보통신 가족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이번 정보문화의 달 행사에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사를 추진하는 주최기관은 광범위한 홍보와 행사의 내실화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러한 정부의 정보문화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보이용의 생활화가 결합될 때 정보화는 더욱 빠르게 추진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한발 더 앞서 나갈 것이다.

올바른 정보화 사회란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정보화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유통되는 정보속에 정이 넘쳐 흐르는 복된 사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올바른 정보문화를 정립하고, 정착시켜 나아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

(표 1) 주요 행사계획

구 분	행 사 명	일 자	장 소	주 최
기 념 식	제11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6. 8	KOEX	한국정보문화센터
전 시 회	제2회 정보화추진종합전시회	6.8~6.11	KOEX	한국 전 산 원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전시회(SEK '98)	6.24~27	KOEX	전 자 신 문 사
학 술 세 미 나	정보화 심포지엄	6.18/9월	춘천/부산 ·대전·광주	한국정보문화센터
	정보통신혁명과 국제정치 국제학술회의	6.12~13	외교안보연구원	한국국제정치학회
	'98 국제컨퍼런스(IT21)-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21세기 정보기술	6.18~19	한국과총회관	한국정보처리학회
	'98 한국멀티미디어 기술 심포지엄	6.24~25	KOEX	한국멀티미디어협회
시 연 회	부산정보산업 소프트웨어시연회	6.18~21	부산시청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진·공모	제15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경시/공모)	7.18/7월	서울대학교	한국정보문화센터
강 연	제2회 복지정보통신 포럼	6.25	중앙우체국	한국복지정보통신협회의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체제	7.3	강원대학교	대한전자공학회
	지방학부모 정보통신 윤리 순회교육	5.21/7.8	원주/부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 타	장애인 정보화 촉진 결의대회	6.20	여의도전시장	장애인정보화추진협회

<자료 : 한국정보문화센터>